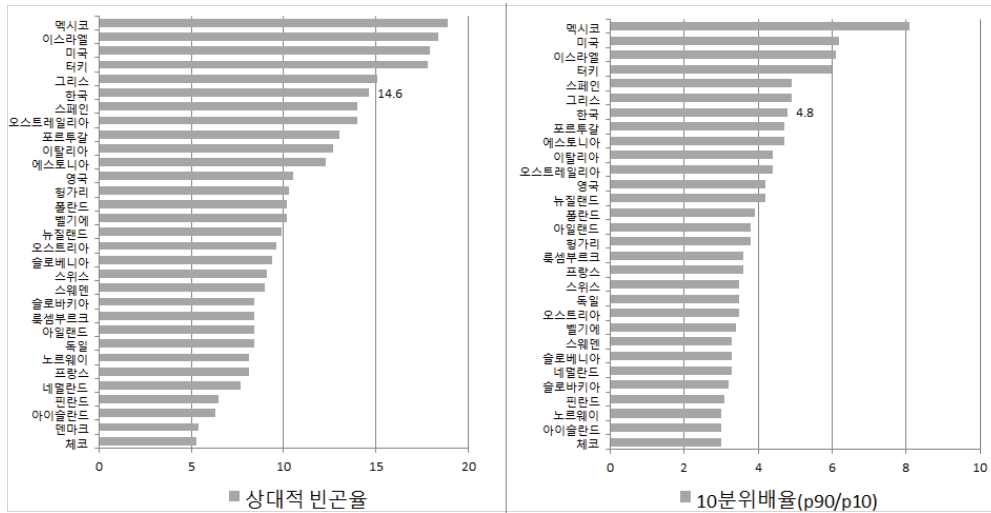


연령별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10분위배율

○ 2014년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관련 지표(지니계수, 상대적 빈곤율, 소득10분위배율)는 2013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¹⁾.

– 지니계수는 0.302(전년과 동일), 상대적 빈곤율은 14.4%(0.2%p ↓), 소득10분위배율은 4.69배(0.04배 ↓)로 나타남.

[그림 1]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과 10분위배율 비교(2012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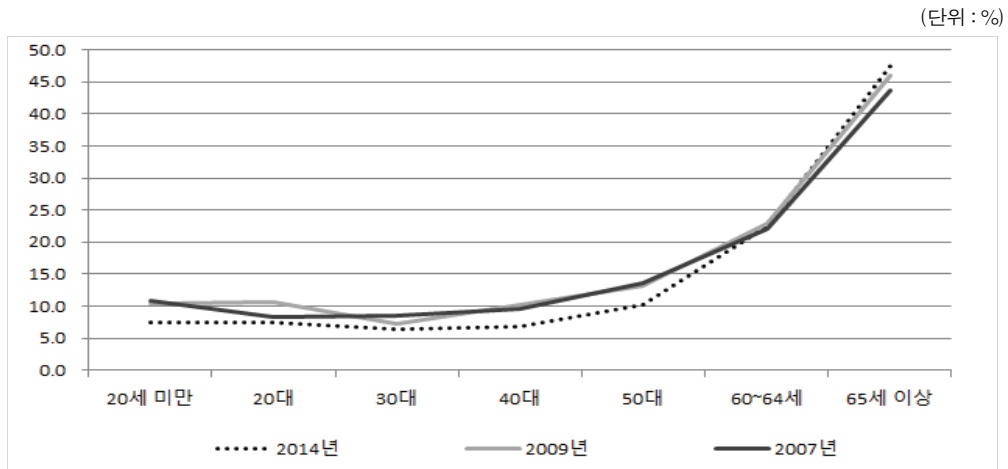


주 : 10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의 분위별 경계값 기준임.
자료 : OECD, <http://stats.oecd.org>

1)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수준이 빈곤선 미만(50% 미만)인 가구의 가중치 비중을 의미한다. 빈곤선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%이다. 균등화 소득은 서로 다른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후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표준화한 것이다(= $\frac{\text{소득}}{\sqrt{\text{가구원수}}}$). 소득10분위배율은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최상위 10%에 해당하는 소득을 최하위 10%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(= $\frac{P90}{P10}$).

- OECD 회원국(2012년 기준)의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, 멕시코(18.9%)가 가장 높고, 이스라엘(18.4%), 미국(17.9%), 터키(17.8%), 그리스(15.1%) 다음으로 한국이 14.6%로 높아 이들은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함. 반면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(5.3%)임.
 - 이와 더불어 소득 계층 최상위 10% 소득과 최하위 10%의 소득 10분위배율 또한 멕시코(8.1배), 미국(6.2배), 이스라엘(6.1배), 터키(6.0배), 스페인·그리스(4.9배) 다음으로 한국이 4.8배로 높게 나타났으며, 이들은 소득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군임(처분가능소득 기준).
-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(47.4%, 2014년)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, 65세 이상 1인 나홀로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74.4%에 달함.
- 상대적 빈곤율을 연령별로 보면, 청년층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임.
(20대 청년층 2009년 10.6% → 2014년 7.4%, 65세 이상 2009년 45.9% → 2014년 47.4%)
 -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, 여성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추세가 전체가구의 연령별 흐름과 흡사함.

[그림 2]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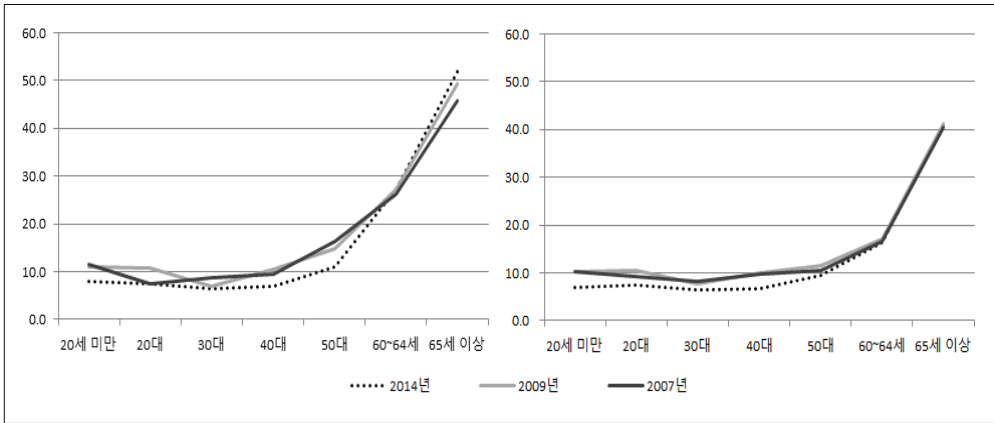
주: 1)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(= $\frac{\text{처분가능소득}}{\sqrt{\text{가구원수}}}$) 기준임.

2)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= $\frac{\text{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해당연령 인구}}{\text{해당연령 총인구}} \times 100$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, 각 연도.

[그림 3] 연령별 소득10분위배율

(단위: %)



주: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(= $\frac{\text{처분가능소득}}{\sqrt{\text{가구원수}}}$) 기준임. 10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의 분위별 평균값 기준임.

() 안은 65세 이상 1인 가구임.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, 각 연도.

- 소득10분위배율을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는 소득 격차가 확대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함.
- 최근 청년층 고용이 20~24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청년층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는,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르게, 이들 연령층에서 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증가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. **KLI**

<표 1> 연령별 10분위배율

	전 체	20대	30대	40대	50대	60~64세	65세 이상
2007	10.0	6.7	6.4	7.1	11.0	11.6	17.4 (13.5)
2009	10.5	9.3	6.2	8.2	9.7	11.9	21.6 (17.2)
2014	9.9	14.9	5.3	5.9	8.4	10.5	15.3 (14.3)

주: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. 10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의 분위별 평균값 기준임.

() 안은 65세 이상 1인 가구임.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, 각 연도.

(김복순, 동향분석팀 전문위원)